얼어붙은 해외 수주에 건설업계 채용시장 벌써 '한파'

코로나19에 시장 위축 장기화
신규 채용 건설사 손에 꼽혀
비정규직으로 인력 공백 메워
중동 회복전까지는 지속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건설업계 채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의 한 건설현장.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채용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 수주 감소에 따른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는 건설사는 삼성물산,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뿐이다.

일반적으로 8월 말~9월 초가 되면 시공능력평가 순위 기준 10대 건설사를 비롯해 대형·중견 건설사들의 하반기 공채가 진행되지만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SK건설은 아직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규직 채용이 줄어든 대신 비정규직 직원은 늘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에 위치한 건설사 소속 총 직원 수는 5만1465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 직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수는 3만6506명, 비정규직 직원(기간제 근로자)수는 1만49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정규직은 약 1.7%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약 1.5% 증가한 수치다. 6개월 만에 건설사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28.3%에서 29.0%로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10대 건설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각각 3만7154명, 1만4730명이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대형 건설사가 정규직 직원은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다.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신규 채용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공백을 비정규직으로 채웠다는 설명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채용 계획안이 마련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이 나온 것은 없다"며 "전반적으로 발주량이 감소하면서 상시 혹은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추세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부동산 시장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입국제한과 발주지연, 입찰연기 등으로 신규사업 수주는 점점 감소 추세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월 이후 해외 신규 수주액은 ▲3월 18억2989만달러 ▲4월 17억9018만달러 ▲5월 18억2597만달러 ▲6월 13억2495만달러 ▲7월 6억5407만달러 ▲8월 10억4116만달러로 하락세다.

건설업계에선 주요 수주지역인 중동이 회복되기 전까진 본격적인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데다 저유가가 지속하면서 중동 침체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연내 오피스텔 1만실 공급… 86% 수도권

경기 5510실 등 수도권 9171실
아파트 규제 대체상품으로 이목

올 연말까지 전국에서 오피스텔 1만여실이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 물량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은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아파트 공급이 급감해 주거 대체 상품으로 오피스텔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피스텔 분양에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9~12월 전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총 1만698실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9171실이 분양될 예정으로 전체 물량의 85.73%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699실 ▲경기 5510실 ▲인천 1962실이다.

수도권에 오피스텔 공급이 집중된 것은 아파트 규제정책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6·17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내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신규 구매 시 기존 전세 대출이 회수되는 반면 오피스텔은 이를 적용 받지 않는다. 또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오피스텔은 최대 70%까지 가능해 자금 마련에 부담이 적다.

〈연내 수도권 주요 분양 예정 오피스텔〉 /부동산인포

위치	단지(사업명)	총호실 수	시공사
서울 구로구 오류동	구로 예미지 어반코어	490	금성백조건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840	현대엔지니어링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자이 더 스타	192	GS건설
서울 구로두 신도림동	신도림 오피스텔(가칭)	711	현대엔지니어링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2차 대방 디엠시티 2블록(가칭)	880	대방건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 주상복합(가칭)	336	HDC현대산업개발

상황이 이렇자 수도권 오피스텔은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분양 성적이 좋다. 지난 6월 경기 수원에 공급된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은 460실 모집에 1만4663건이 접수돼 평균 31.4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같은 달 서울 영등포구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 역시 평균 18.52대 1로 전 타입 청약을 마쳤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수도권에 오피스텔이 틈새상품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다만 수도권은 지표상 오피스텔 수익률이 하락세여서 교통환경, 배후수요 등 입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에이빈시오, 오리지널과 동등성 확인"

임상 후속 연구결과 공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유럽 종양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현지 시간 14~18일에 열리는 가상 전시회를 통해 '에이빈시오(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에이빈시오의 글로벌 임상3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여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임상의학적 동등성을 재차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임상3상에 참여했던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 중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준수한 '순응 집단(PPS)'으로 분류된 665명을 대상으로 에이빈시오와 오리지널 의약품 간 추가적인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첫 번째로, 24주간의 '최고 전체반응률'에서 유의미한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11주 및 17주차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최고 전체반응률이란 특정 기간 동안 사전에 정해 놓은 범위 이상의 종양 감소를 보인 환자의 비율을 뜻하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과거 총 24주간의 최고 전체반응률을 에이빈시오 임상3상 결과의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로 측정한 바 있다.

그 결과, 11주 및 17주차에 보인 에이빈시오와 오리지널 의약품 간 최고 전체반응률 위험도 차이는 각각 2.2%와 2.4%로, 두 의약품 간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기준점 대비 종양 크기의 '최대 변화율'을 측정했다. 이는 치료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각 주차별로 종양이 가장 크게 감소한 비율의 평균값을 구한 것으로서, 이 결과 역시 에이빈시오와 오리지널 의약품 간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진행한 에이빈시오 임상 3상 후속 연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17일(현지시간) e-포스터 형식으로 주최측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상반기 금융지주 순익 7.6조… 11% 감소

코로나에 대손충당금 적립 원인
적립 규모 전년말 대비 5.33%↑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의 실적이 뒷걸음질을 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은 탓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신한·농협·우리·하나·BNK·DGB·JB·한투·메리츠 등 10개 금융지주사의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7조62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430억원)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은행과 금투가 각각 8951억원(14.1%), 5188억원(29.1%) 감소했다. 반면 보험과 여전사는 각각 1582억원(26.9%), 2542억원(25.0%) 증가했다.

자회사 권역별 이익 비중은 은행이 61.5%로 가장 컸고 ▲여전사 등 14.3% ▲금융투자 14.2% ▲보험 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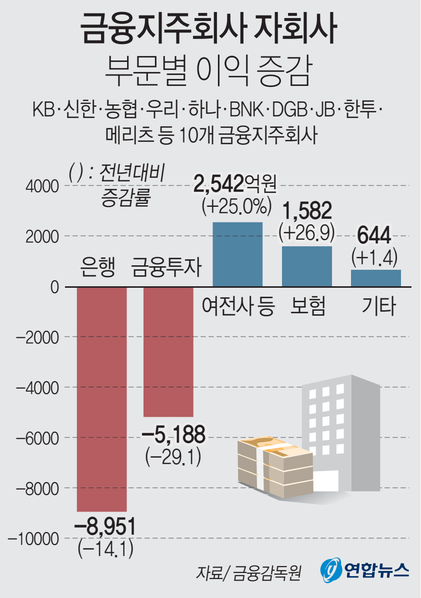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지주사의 연결총자산은 2822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7.4%(194조1000억원) 늘었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128조6000억원(6.5%) 증가했고 ▲금융투자 48조3000억원(+18.9%) ▲보험 8조2000억원(+3.7%) ▲여전사 등 10조3000억원(+7.1%) 늘었다.

금융지주그룹 총자산 대비 권역별 자회사의 자산 비중은 은행이 74.8%, 금융투자 10.8%, 보험 8.1%, 여전사 등이 5.5%를 차지했다.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3.70%, 12.27%, 11.19%다. 전년 말 대비 각각 0.16%포인트, 0.17%포인트, 0.09%포인트 상승해 규제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금융지주사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비율은 0.55%로 전년 말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28.62%로 전년 말 대비 5.33%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지주들이 코로나19 등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사의 부채비율은 29.05%로 전년 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8.69%로 전년 말 대비 1.57%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사가 자산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자금공급 기능도 유지토록 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내부유보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개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등 소속회사 수는 250개사며, 점포 수는 8775개다. 임직원 수는 16만2417명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